

전남도, 신안에 원전 3기 규모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

3.2GW 규모 해상풍력단지 10개 2031년까지 민자 20조원 투입 지자체 주도 민관협의회 중심

전남도가 신안 바다에 3.2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조성한다.

설비 용량만 원전 3기 규모로, 민자 20조원을 들여 10개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신안 해상풍력집적화단지 조성에도 따른 파생 일자리는 3만 3000여개, 주민에게 돌아가는 공급인증서(REC)는 2000여억원 수준으로 지역 경제와 주민 삶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공고했다.

해상풍력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 민관협회의 회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운영하는 구역이다. 오는 2031년까지 민자 20여 조원이 투입된다. 3.2GW는 해상풍력 설비용량 기준 아시아-태평양 최대이자 세계 2위 규모다.

집적화단지 지정에 따른 공동 접속 설비 구축으로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동 접속 설비는 각각의 해상풍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 데 모아 육지로 송전하는 설비다. 개별 발전소마다 별도로 송전선을 설치해 송전하는 것보다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전남도는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을 포함하는 전력계통협의체를 구성해 송·변전설비 구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신안 해상풍력집적화 단지가 조성되면 전남도와 사군, 주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로 주민에게 2000억원, 전남도와 사군에 450억원의 REC가 주어진다. 전남도는 REC로 주민 이익 공유 및 에너지 기본소득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지역 산업생태계도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 **공급인증서(REC)**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해 에너지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REC는 일종의 탄소배출권거래제에 필요한 거래 단위다. 0.1의 REC 가중치를 지자체를 통해 받는다는 것은 세계 기업 간 탄소배출권 거래 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자체 세수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 전남도는 하루 구조물, 타워, 케이블 등 해상풍력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연관 기업 유치에 힘쓸 방침이다. 목표산업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기자재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해상풍력을 전남 대표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전남도는 해상풍력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업 100개, 전문인력, 2500명, 일자리 3만개 등의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 산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해상풍력 산업과 관련성이 영암 대불산단 등 조선·해양 기업들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집적화단지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도내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산업부는 "전남도는 송전선로가 지나갈 것으로 예정되는 지역의 주민 대표를 민관협의회에 참여시키고 전력계통협의체,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해 공동 접속 설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해상풍력 기자재 산업 및 연관 기업 육성 등이 포함된 전략을 수립·이행해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앞으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목포신항과 해남 화원산단에 해상풍력 기자재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이라며 "또 동부권 등 전남 전역에 해상풍력 30GW를 보급함으로써 전남이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수도이자, 아시아-태평양 해상풍력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6일 교황 장례식...천주교 광주대교구, 각 성당서 추모미사

현지시간 오전 10시 봉헌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이 오는 26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5시)에 열린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22일 발표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프란치스코 교황을 기리기 위한 추모미사가 열린다.

천주교 광주대교구(교구장 유현진)는 오는 26일 오전 각 본당에서 추모미사를 봉헌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주대교구는 교수 사제, 선교·수도회, 기관·단체에 배포한 공문을 통해 "신부님께서는 교황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오는 26일 오전 중에 각 본당(수도회)에서 추모미사를 거행해 달라"고 밝혔다.

오는 26일 오전 중에 추모미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다른 날이라도 추모미사를 봉헌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교구 차원에서는 따로 분향소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대교구는 이날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상임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별도 분향소는 설치하지 않고 개별 추모미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광주대교구는 "부활 발일 축제 동안에는 그날의 미사를 거행한다"며 "미사 중 감사기도에서 교황 이름을 부르는 부분은 생략하고 곧바로 '저희 주교 시몬과'로 넘어간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교황의 장례 미사에 의장인 이용훈 주교를 비롯해 염수정 추기경(전 서울대교구장), 임민균 신부(주교회의 홍보국장)가 참가한다고 발표했다.

22일 분향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는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이날 오후 3시 분향소를 찾는 것을 시작으로 일반 조문이 시작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관광공사, 인니 여행업계 관계자 '팸투어' 진행

광주시가 '2025 광주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쏟는다. 외국 여행업계 초청 팸투어, 오사카 엑스포 등 국제행사 광주 홍보관 운영 등 글로벌 관광시장 공략을 위한 마케팅 활동에 본격 나서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광주로 모으겠다는 것이다.

광주시와 광주시관광공사는 22-23일 이틀간 인도네시아 주요 여행업계 관계자 21명을 초청해 광주 대표 관광지를 탐방하고 지역특화 콘텐츠 체험하는 '팸투어'를 진행했다.

호남광역권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이번 팸투어는 광주·전남·전북지역 관광공공기관이 공동 기획하고,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가 협업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팸투어 전체 일정(21-25일) 중 광주 일정은 22

~23일 이틀간이다. 앞서 21-22일에는 여수와 순천을, 24일에는 전북 전주에서 팸투어가 열린다.

'광주 팸투어' 참가자들은 5·18민주화운동 테마코스 '소년의 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전일빌딩245,광주항교 등을 방문해는 광주의 역사성과 민중화 도시를 강조한 특화 관광지를 둘러본다. 광주시는 참가자들이 스토리텔링 기반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발전 가능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5월에는 영국의 대표 여행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제2차 글로벌 팸투어'도 추진한다. 광주시는 5월 중 '2025 오사카 엑스포'와 '2025 타이베이·신베이 마스터스 대회'에 참가, 광주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해외 마케팅에도 나선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인하 폭은 축소

5월 휘발유 40원·경유 46원 인상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두 달 더 연장하되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휘발유 가격은 L당 40원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는 오는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휘발유 인하율은 당초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L당 738원, 경유는 494원 부과된다. 각각 이달보다 40원, 46원 오른 수준이다.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휘발유는 L당 82원, 경유는 87원 세 부담이 경감된 수준이다.

LPG 부탄은 다음 달부터 L당 173원으로 이달(156원)보다 17원 오르고,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30원 저렴하다.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면서도 여전히 140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하 조치는 연장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유가·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지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으며, 그간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4차례 연장했다. 이번에도 인하 조치를 유지해 15번째 연장이다.

정부는 아울러 유류세 일부 환원을 위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시행한다.

/연합뉴스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 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권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김동규(590417-1XXXXXX)
• 최후주소 : 여수시남산로60-20,301호(남산동)
피상속인 망 김동규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
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5년단33호로 신
청하여 2025년 4월 17일 심판 인용되었으
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
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
를 하시지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하
서 제외됩니다.
2025년 4월 23일
• 상속인 : 김순이(560407-2XXXXXX)
여수시 남산남1길 17-3(남산동)
• 신고기간 : 2025. 4. 23. ~ 2025. 7. 3.
• 채권신고처 : 상속인 김순이의 주소

자본감소공고

당 회사는 2025년 4월 21일 총사원동의
로 자본금의 총액 금205,000,000원 중
금155,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금 금
50,000,000원으로 하기로 결의하고, 그 방
법으로서 1좌의 금10,000원의 사원 조종의
5,000좌, 사원 조영진 4,500좌, 사원 조인혁
6,000좌를 무상으로 소각하여 자본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음.
위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익일부터 1월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함.
2025년 4월 23일
유한회사 기림건설총기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공설운동장길11-19
대표이사 조승희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